

2021 새해 새 설계

전동평 영암군수

# “지역발전·군민복지 실현에 모든 행정력 집중할 것”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11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과감한 도전으로 영암 경제를 살리고 역동하는 영암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은 대불국가산단과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이 있다. 주변에는 목포신외항과 무안국제공항 등을 갖추고 있어 자동차, 바이크, 경비행기, 드론 등 미래산업의 메카를 만드는 데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주거단지과 교육시설, 문화관광시설 등 인프라를 고루 갖춘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전 군수는 “환경문제가 화두다. 국가정책의 큰 축을 담당할 그린뉴딜사업과 친환경정책은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사회적 현실”이라며 “각종 산업의 트렌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중심의 영암형 그린뉴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메카 조성 최적지

주거 인프라 갖춘 ‘기회의 땅’

혁신으로 ‘역동의 영암’ 조성

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암군은 최근 수소연료전기 기반 레저선박 건조·실증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레저선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신안군 해역에 조성될 예정으로 지자체 생산단지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대불국가산단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군수는 산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함께 주민들의 복지향상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그는 “군민

## 2021년 주요 사업

- ▲ 친환경 중심 영암형 그린뉴딜 추진
- ▲ 수소연료 기반 레저선박 건조·실증사업
- ▲ 해상풍력발전 지자체 생산단지 구축
- ▲ 고품질·고소득 생명농업 집중 육성
- ▲ 300억원대 월출산 관광화 사업 추진
- ▲ 보편적 복지·맞춤형 복지 조화
- ▲ 정렬한 공직문화 조성

모두가 행복한 영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꿈”이라며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육·노인돌봄의 든든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시책을 늘리고,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조화

로 한층 높은 복지수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고소득의 생명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생명산업과 항공산업 등 신성장동력인 4대 핵심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관광산업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영암군은 월출산 주변 관광화 사업으로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190억원), 숲속 웰니스 설치(45억원), 월출산 들레길 생태 경관사업(18억원), 월출산 명사 탐방로 조성(18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관광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 군수는 “내부적으로는 정렬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존 관행의 답습을 탈피하는 등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암형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해 모두가 원하는 군민복지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소통하고 연구하며 함께 달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영암·전통현 기자 jbh@kwangju.co.kr



## 확 바뀐 무안 회산백련지 3월에 만나요

유리온실, 카페·쉼터 등 탈바꿈...돌담길·향토음식관도 조성

무안 회산백련지가 시설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회산백련지 내 수상유리온실은 카페와 방문객 쉼터로 탈바꿈해 3월 중 문을 열 예정이다.

카페 내·외부에는 연꽃, 장미 등이 그려진 인테리어와 벽화, 안락소파, 비취조명이 어우러진 포토존 등을 설치했다. 기둥을 타고 오를 멋스러운 인조목은 숲의 나무를 연상하게 한다.

2층에는 열대식물 사이사이에 6개의 쉼터를 조성했다. 카페가 문을 열면 관광객들은 창 너머로 보이는 절경을 감상하며 커피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객들이 맛있는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향토음식관을 연면적 2098㎡ 규모로 건립했다.

1층에는 음식점과 매점을 운영할 예정이며, 2층은 다용도 생활관으로 활용한다.

새로운 볼거리로 150년 된 9가지 ‘다행송’이 식재된 송나인동산을 비롯한 소나무동산, 풍류쉼터, 하트동산을 선보이고 동산과 동산 사이에는 자연성곽식 힐링 돌담길을 조성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감염병을 차단하겠다”면서 “올 봄부터는 백련지 곳곳에 다양한 꽃을 식재해 회산백련지를 품격 높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무안 회산백련지 내 수상유리온실이 카페·방문객 쉼터 등으로 탈바꿈, 오는 3월 문을 연다.

## 겨울철 별미 ‘완도 매생이’ 본격 채취

고금·약산 329어가...전국 생산량 70% 차지

겨울철 별미인 ‘완도 매생이’가 본격 채취되고 있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고금면과 약산면 329어가에서 매생이 채취가 한창이다. 총 시설풍은 1만 466척으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는 뜻의 순우리말인 매생이는 청정해역에서 자라는 무공해 식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수산물로 ‘매생이’를 선정했다.

특히 완도 매생이는 정화작용과 생리활성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 해역에서 자라 이물질 없이 깨끗하다. 매생이는 비타민 A와 C,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풍부하고 우유보다 40배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 개선에 효과가 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매생이는 겨울철에 굴을 넣어 튀어 먹거나 전으로



로 즐겨 먹는다. 요즘엔 마른 매생이를 라면에 넣어 먹는 요리법도 선보인다.

완도군 관계자는 “매생이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채취한다”며 “건강에 좋고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매생이 요리로 겨울 밥상을 차려보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진도군, 코로나 위기 축산농 지원책 확대

진도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적극 나섰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명품 축산농가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친환경 약취저감시설 지원, 가금농가 원스톱 민원처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등을 확대한다.

친환경 인증 농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억6000

만원을 들여 친환경 약취저감시설 등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특히 고병원성 AI 차단에 위해 입식 전과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입식 7일전 신고를 하면 출하 전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가금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저자 이진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